

정신장애인의 차별경험에 관한 연구

윤 삼 호

장애인가카데미 소장

연구 개요

- 연구 기간 : 2017. 3 ~ 10
- 인터뷰 참여자 : 법정 정신장애인 33명
- 경험분석 대상 : 33명 중 15명
- 인터뷰이, 인터뷰어 모두 정신장애인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주요 진단명
P1	F	36	조현병
P2	M	58	우울증
P3	M	32	조울증
P4	M	45	조현병
P5	F	29	조현병
P6	M	52	조현병
P7	M	42	조현병
P8	M	32	우울증
P9	M	31	조현병
P10	M	28	조현병
P11	M	48	조현병
P12	F	50	조현병
P13	F	48	조현병
P14	M	40	조울증
P15	F	34	조현병

1. 강제 입원 경험

- 제 방에 있었는데, 검은색 옷 입은 사람 3명이 들어와서 막 잡아가려고 하는데, 전 맨발이었거든요. ... **날 묶어서 앰블런스에 넣더니 워커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거예요.**(P7)
- 가족들이 저를 차에 싣고 ... 제가 심해지니까 어머니가 병원으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강제입원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배신감이 들고, “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P1)
- 급성증상이 오면, 늘 강제입원되고. 수면 주사만 맞으면 되는데도 어떻게든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더 심해져요. ... **환시를 보는 것보다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당하는 게 천 배는 더 무서워요.**(P13)

-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의자를 던지고 난동을 부려서 묶었는데, 사지를 처음 묶어 봤어요. 풀어주려나 싶어서 화장실 가려고 한 다니까 그냥 누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채웠으니까. 말도 안 됐어요.
(P14)
- 어느 때부턴가 6개월에 한 번씩 퇴원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대요. 그때부터 저한테 서류를 주고 사인하라고 하고, 저는 무슨 서류인지 설명도 못 듣고 사인을 했고요. 사인을 하면 "가퇴원이십니다." 그러면 보호자들이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가요. 짐은 트렁크에 싣고요. ... 1박 2일정도 있다가 다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깐 8~9년 정도 (정신병원에) 있었어요.(P15)

2. 가족 내 차별 경험

- 집에서 대소사에 대해 얘기를 안 해줘요. 누가 돌아가셨고 ...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얘기하시고, 친척들은 제가 병에 걸렸는지 전혀 모르고요. 가족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차별을 받을 때 “너는 병이 있으니까”라고 말해요.(P15)
-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이 사람 같지도 않은데 무슨 인권이 있냐, 인권 그런 것 필요 없다”고 해요.(P10)
- 저보다 4살이 어린 데도 저한테 한 번도 오빠 소리를 한 적이 없고, 기본 호칭이 “야, 너.” 저 굉장히 아팠을 때, 한 20살에서 25살 때, 그때는 그냥 “너 같은 뭐는 그냥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P3)

- 가족이 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잖아요? 그때부터 가족들이 무조건 나보다 옳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나는 무조건 이상하고 자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본인은 거짓말을 해놓고 뭐라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 씌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자꾸 당사자를 의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넌 잘못 됐어, 네가 이상한거야." 당사자는 "정말 내가 정상인가,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위축되게 만드는 거지.
(P13)

3. 연애와 결혼에서 차별 경험

- 아버지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남자를 사귀다면 그 집안에 제가 정신병이 있고,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야 한다고요. 만약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하면 혹시나 병이 재발했을 때 이혼을 당한다고. 그러면 위자료도 못 챙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게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남자를 사귄 때 그 조건을 갖추려면 나보다 훨씬 조건도 열악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구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렸는데도 결혼을 하고 약을 절제해가면서 애기를 낳는 그런 사람들이예요.(P12)

- 2년 넘게 비장애인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처음 사귄 때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만 “우리 인연을 끊자. 너 계속 연애를 하려면” ... 그래도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혼인 신고할 때 남편이랑 같이 우리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가족들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 ... 남편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시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무슨 약을 먹냐고 물어보면 잠이 안 와서 먹는 약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P15)
- 부모님은 연애만 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둘 다 아프면 가정을 어떻게 꾸리려 그러냐.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하면 어떻겠니?”** 그런 말은 하죠.(P14)

4. 지역사회 차별 경험

- 공동생활가정에 살 때 공부하러 늘 마을 주민생활센터 도서관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맨날 책 읽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화가 왔대요. 도서관에서 전화를 했다는데, 우리 원장님한테 “이 사람 나오지 않게 하라”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못 나갔던 경우가 있어요.(P2)
- 그냥 불쾌했다기보다는 조금 창피 했어요. 지하철 직원이 “복지카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매번 눈치를 보게 되고 직원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왜 내가 주눅이 들까, 내가 잘못된 병을 앓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P1)

5. 언론에 의한 차별 경험

- 정신장애인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보도가 나간 뒤에 뉴스 댓글을 보면, “정신장애인 이런 것들은 쳐 넣어야 한다”, “죽여 버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돌아다니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부터 죽여야 한다”까지 별 소리가 다 있어요.(P8)
-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였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신과 분석 한 다음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두고 보겠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왜 정신과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정신과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인식이에요.(P4)

- 내가 보기엔 저 (범죄자가) 조현증이 아닌데도 무조건 갖다 붙이잖아요. 이견 장애인 학대이죠. 일종의 누명을 씌우는 범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의사들도, 경찰들도, 언론인도 전부 다. 그런데도 아무도 잘못 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P13)
- (정신장애인 기사를) 볼 때마다 자괴감, 상실감. 또 어떤 때는 자살해 버리고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생각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 차별과 편견과 이 낙인을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죠.(P4)

결론

- 억압적 정신의학 시스템 --→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 또는 자립생활모형
-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와 강박의 절차를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
- 정신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정신장애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인식 전환
- 언론과 시민사회의 태도 변화

감사합니다.